“전도의 현장에서 배우고, 목회의 지혜를 나눈다”

희망의바람, ‘제1차 하나개 전도 · 목회 멘토링’ 개최



비영리법인 희망의바람이 젊은 목회자들의 전도 역량을 강화하고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인천 부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차 하나개 전도 · 목회 멘토링’을 개최했다.

교단 소속 젊은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한 영적 재충전과 함께 현장 전도 훈련, 구원상담, 목회 멘토링 등을 통해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역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하나개 갯벌 치유예배를 시작으로 현장 전도훈련, 구원상담 및 영접기도 질의응답, 담임목회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이어진 전도훈련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며 실질적인 전도 방법을 익혔다.

특히 원로 목회자 부부들이 바닷가 전도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참석자들은 선배 목회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감동을 나타냈으며, 성서교회 정재호 목사의 전도 간증을 통해서도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후에는 구원상담과 영접기도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전도 대상자와의 상담 방법과 복음 제시 과정 등을 살펴봤다. 특히 전도 이후 새신자의 교회 정착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후속 사역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전도 전략을 모색했다.

이어진 담임목회 멘토링에는 이종복, 유우열, 최종인 원로목사 등 교단의 원로 목회자들이 참여해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 경험과 지혜를 전했다. 선배 목회자들은 담임목회의 방향과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언했으며, 젊은 목회자들은 사역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선배 목회자들과의 멘토링이 가장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교회 부흥을 위한 조직적인 전도대 구성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가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하나개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루기보다 한두 가지 핵심 주제에 집중해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다음 멘토링에서는 목회자뿐 아니라 사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희망의바람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교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목회자들의 전도 역량과 목회적 통찰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다양한 평가와 제안은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고 선후배 목회자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용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교지 편지 ····· 남아공 김경래 선교사

REAL S 어린이교회

지난 9월 마지막 주 REALS 어린이교회에서 예정되었던 달란트시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모았던 스티커를 달란트로 바꿔서 먹거리와 여러 가지 생필품과 학용품, 장난감들을 고르며 즐거워하는 표정이 더없이 밝았습니다. 천국잔치같은 달란트시장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구굴레투교회 주일학교 교사교육



구굴레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교육을 하였습니다.

REALS연구소의 연구원인 백수아 선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꼭 필요한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적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한 아이들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 간략하고도 쉽고 재밌게 전달해 참석한 교사들 모두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들은 어린이 사역이 안전한 쉼터 없이 살아가는 구굴레투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안전한 피난처임을 깊이 동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어린이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재적인 부분들을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맡는 분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반기 REAL S 정기세미나



하반기 REALS 정기세미나가 9월 8일과 10일, 15일, 17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사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4번의 강의가 ‘더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기초로 삼위일체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REALS연구소 연구원인 이정영 선교사도 한 강의를 맡아 주었습니다. REALS 세미나를 통해 정규 신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REAL S 가족수양회

첫 번째 REALS 가족수양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방문 중인 이유로 한 가정이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했지만 프레토리아와 미들버그, 그리고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모여 2박 3일의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소의 비전을 나누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사역 계획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일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네 가지 나눔사역 펼쳐

20여 년 이어온 반찬나눔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서울서지방회 매일교회(김병수 목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섬김 사역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매일교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 등불 푸드뱅크마켓 ▲희망드림 사랑의 반찬나눔 ▲백세 힐링교실 ▲민안망을 위한 관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사역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첫째, ‘사랑의 등불 푸드뱅크마켓’ 사역

생필품과 식품, 각종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필요한 물품을 나누며 이웃들의 일상에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

둘째, ‘희망드림 사랑의 반찬나눔’ 사역

매일교회 나눔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반찬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껏 준비한 건강한 반찬을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며, 식생활 지원과 함께 안부를 살피고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웃의 삶을 살피고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는 사역이다.

셋째, 지역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백세 힐링교실’ 사역

‘건강한 몸, 행복한 마음,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성장’을 표어로 하는 백세 힐링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영되는 매일교회의 실버처치 사역이다. 매주 약 50~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가운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신앙과 삶의 활력을 나누고, 참석자들의 재능기부 발표회도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서로 교제하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서적 돌봄과 공동체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넷째, 민간사회안전망을 위한 관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사역

매일교회는 지역 관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민 · 관이 함께하는 나눔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교회와 행정기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